

광주여성영화제

11월 9~13일 광주극장·CGV금남로... 영화 55편
무료 관람... 배리어프리 특별전, 변영주 감독 등 참여



폐막작 '양림동 소녀'

언젠가 '이기는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가 함성이 될 때까지, 언젠가 '이기는 목소리'로 발현될 수 있는 날을 그리며 광주의 한 영화제가 11월 관객들을 찾는다.

소수자들과 연대하고 이들을 응원하는 가치를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광주여성영화제가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코로나19로 좌석을 100% 열지 못했던 지난 3년과 달리 이번 영화제에서는 좌석 100% 오픈으로 더 많은 관객들을 수용한다.

광주 극장과 CGV금남로에서 선보여지는 영화제는 총 55편의 영화(장편 17편, 단편 38편)와 18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영화제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기는 목소리'로, 미투와 함께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발화된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소수자들의 작은 목소리와 연대해 이기는 함성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영화제의 첫 상영작은 정가원 작가의 '무브@8PM'이다. 퀴어 댄스팀 '큐캔디'로 활동 중인 정 감독은 큐캔디의 면면을 촬영해 영화로 만들었다. 영화에는 장애인 활동가부터 이공계 대학생까지 성격도 직업도 모두 다른 퀴어들이 등장한다. 영화는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세상과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무대 사이에서 아슬한 춤을 추는 댄스팀의 이야기를 다룬다.

1960년대 여성 판사의 의문의 죽음을 영화로 만든 '여판사'는 한국의 두 번째 여성 감독인 홍은원 감독이 한국 최초의 여판사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 이따금 영화 흥행 실패로 슬럼프에 빠진 영화 감독 지현이 홍은원 감독의 작품 '여판사'를 복원해 흥 감독의 행적을 따라가는 내용의 영화 '오마주'도 함께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제 상영작은 말라위와 미국을 오가는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 '개미와 배짱이', 영국 켄트의 낙농장에서 태어나고 자란 젓소 루마 이야기 '카우',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 시위 당시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고(故)김귀정 열사 어머니 김중분씨의 노점 이야기



개막작 '무브@8PM'

다큐 '왕십리 김중분', 애니메이션 '뽀미'와 '각질' 등이다.

특히 기존 영화에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해설과 대사, 음악, 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배리어프리자막이 함께 하는 배리어프리 특별전 영화도 4편 상영된다.

폐막작으로는 임영희 감독의 '양림동 소녀'가 선보여진다. 임 감독은 "광주학생독립운동부터 5·18 민주화운동, 중풍으로 쓰러진 뒤 장애인으로 살아가며 느낀 차별까지 삶을 녹여 만든 다큐멘터리다. 사회를 바꾸는 공동체의 힘을 느끼며 살아왔다. 이번에는 작품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싶어 위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스페셜 토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먼저 다양한 장르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이는 '네트워크 시간'을 운영한다. '광주에서 예술하는 여자들'과 '여성영화제를 만드는 사람들', '광주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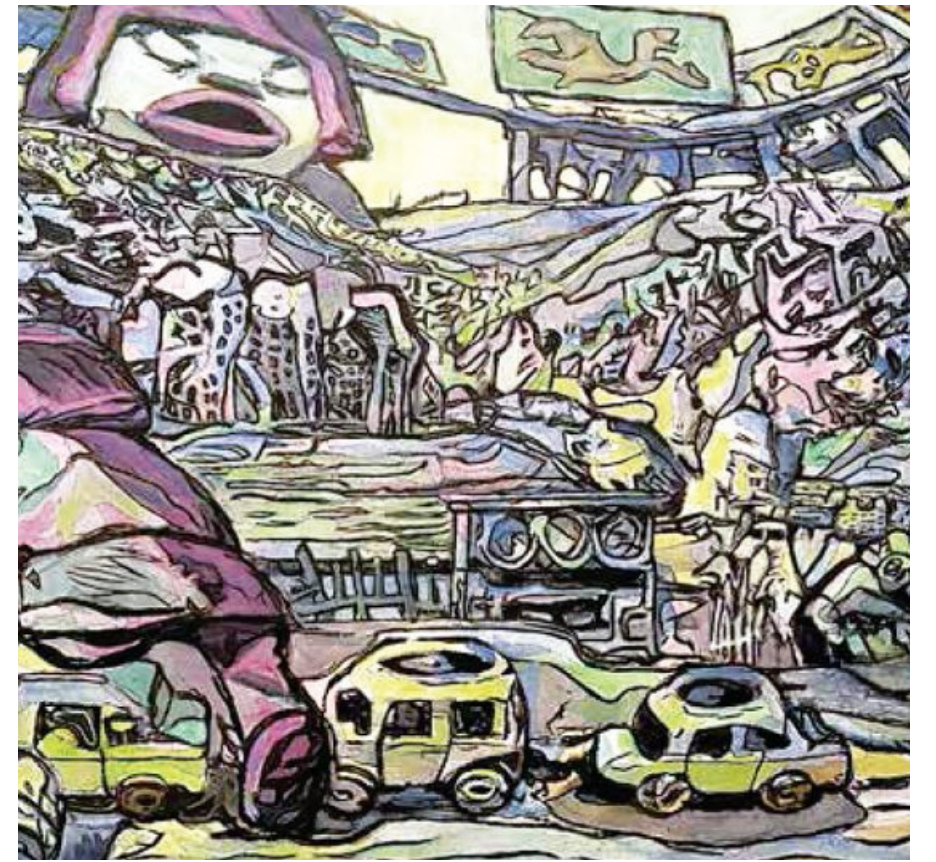
영화제의 밤'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연대하고 함께 나아가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다.

12일 오후 4시에 CGV광주금남로 1관에서 열리는 '포커스 토크'에서는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이후 처음으로 토크쇼가 열린다. 권김현영 여성학자와 장도국 배우, 허지은 감독이 자리해 미투 이후 수년이 지난 오늘날 어디쯤 와있는지,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의 남은 과제 등을 조망한다.

올해 처음 만들어진 프로그램 '마스터클래스'에서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변영주 감독의 영화 '화차'를 함께 상영한 뒤 변 감독의 실제 영화 제작 과정 등을 가까이에서 들여볼 수 있다.

영화제는 전편 무료로 상영되며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515-6560.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Terunuma Atsuro의 작품

'옆집 사는 조각가' 결과보고전

발산마을 뽕뽕브릿지·아트파이 갤러리 연계전시

발산마을 뽕뽕브릿지가 진행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결과보고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유공간 뽕뽕브릿지에서, 11월 1일부터 13일까지는 아트파이 갤러리에서 열린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2022년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옆집 사는 조각가'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조각의 쇠퇴 현상을 진단하고 전통 조각의 표현방법을 확장해 보자는 의미로 기획된 프로젝트다.

'오버로드'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는 갈색 냅킨으로 조형작업을 진행하는 신나운 작가를 비롯해 백종휘, 차유나, 권윤지,

전민준, 윤중훈 작가가 참여했다. 또 요코 하마에서 활동중인 'Terunuma Atsuro'는 사회풍자, 내면과 꿈을 주제로 한 작업물을 전시한다.

참여작가들은 전통 조형작업을 비롯해 영상, 페인팅, 공학을 접목한 작품 등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작가들은 레지던시 활동을 통해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글쓰기, 사진, 미디어), 아티스트 스튜디오 탐방, 주민 참여 프로그램, 주민 예술가들과의 교류 등을 진행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체코에 날아든 나비...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해외서 러브콜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체코 등 해외에서 잇따라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작가는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체코대사관의 이전을 기념, 신청사 로비에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주 체코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행사로 27일 대사관 개관식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작은 '김홍도-묵죽도' (2013), '인왕제색도-사계' (2009), '나비' (2016) 등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작품 3점이다.

나비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물이 지나는 생생한 느낌을 살린 작품 '나비'는 체코의 희망찬 미래, 한국과 체코 간 우정과 협력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출품했다.

이 작가는 또 12월 1일~31일까지 방글라데시 실파칼라 아카데미에서 열리는 제19회 아시안아트 비엔날레 2022에도 참가한다. 'Here, There and Everywher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이 작가는 대표작품인 '박연폭포', '금강전도', '조춘도-사계III', '모나리자 패러' 총 4점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올해 아트 마이애미,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기념 리아트 미디어 파사드, 광주미디어아트센터(G.MAP) 개인전 등 국내외 다양한 전시와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최근에는 벨기에, 라트비아, 스페인,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전시회를 열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0월27일부터 체코대사관 이전 기념... 12월 아시안아트 비엔날레 참가



'나비'

깊어가는 가을...첼리스트 이후성 독주회

11월3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첼리스트 이후성(사진)의 첼로 독주회가 11월 3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광주시립교향악단과 조선대학교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로버트 슈만 비롯한 4명의 음악가의 곡을 선보인다.

먼저 로버트 슈만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OP70'를 연주한 뒤 바흐의 '첼로 모음곡 3번',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와 피아졸라의 '그랑벵고'를 연주한다.

솔리스트와 실내악 연주자로 한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후성 첼리스트는 조선대학교 음악교육과를 졸업,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 만점으로 디플롬을 취득했다. 이후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코 국립 교향악단 등과 협연하고 재독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수석단원 및 객원단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첼로 부수석과 전남대 음악교육학과 겸임교수에 재직 중이다.

티켓은 2만 원이며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문의 010-5606-5001. /김다인 기자 kdi@



'광주관광 우수협업사례 발굴 공모전' 28일까지

광주관광재단이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 함께 '광주관광 우수협업사례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광주 소재 관광기업의 생성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상품과 서비스, 콘텐츠 개발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2개 이상 기업이 결성한 팀으로 광주 관광을 주제로 관광상품과 서비스, 제품 등 기업 간 협업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부문은 광주 소재 관광기업 1개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타 지역 관광기업 1개사 이상이 협업하는 '광주 협업 프로

젝트'와 광주관광을 소재로 타 지역 관광기업 2개사 이상이 협업하는 '타 지역 협업 프로젝트'로 나뉜다.

당선된 팀에는 최대 5000만 원 사업 지원금과 홍보마케팅,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등의 전반적인 행정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접수는 오는 이달 28일 오후 2시까지이며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담당자 이메일(kjh486@knto.or.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윤정규 작 '복을 향아리 가득 담아드립니다'

까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DMZ 평화생명동산, 여수엑스포 타워전시관, 북한산아름갤러리 등에서 8차례 초대전을 진행하며 솟대의 매력을 알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